



보도 일시	2022. 3. 31.(목) 15:30	배포 일시	2022. 3. 31.(목) 14:30
담당 부서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장 장보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조선형 (whwns56@korea.kr)

## 국채 백서, 「국채 2021」 국·영문판 발간

-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채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\*, 「국채 2021」을 발간하였습니다.
- \* 국채시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, 국민들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이후 발간
- 「국채 2021」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80.5조원의 발행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했던 2021년 국채시장 동향과 관련 제도가 담겨있으며,
  -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, 모집 방식 도입 등을 통한 국고채전문딜러(PD)의 인센티브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추경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2021년 국채시장은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이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강조하는 한편,
- 국채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도 이루어지면서 양적, 질적 측면에서 모두 한 단계 더 발돋움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  - 또한 한 해 동안 국채시장이 겪어온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「국채 2021」이 국민의 이해를 돕고, 향후 국채시장 발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「Korea Treasury Bond 2021」도 함께 발간하였습니다.

○ 국·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([www.moef.go.kr](http://www.moef.go.kr))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([ktb.moef.go.kr](http://ktb.moef.go.kr))를 통해 전자문서(pdf)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「국채 2021」 주요 내용은 [별첨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1 2021년 국채시장 동향

### ◇ (금리) 상반기 중 완만히 상승, 하반기에는 급등 후 안정

- (상반기) 연초 글로벌 금리 급등에 동조하여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했으나, 이후 수급부담이 완화되어 중·장기물의 경우 안정세
  - 美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 회복 기대감 및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급등
  - 상반기 중 지속 상승하던 국고채 금리는 6월 중 2차 추정 적자국채 미 발행 소식 등으로 수급부담 우려가 완화되어 하락(10y·30y)
    - 다만, 단기물(2y~5y)의 경우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승
- (하반기) 9월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·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으나, 이후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하락
  - 美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,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
  - 11월에는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,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리 하향 안정

2021년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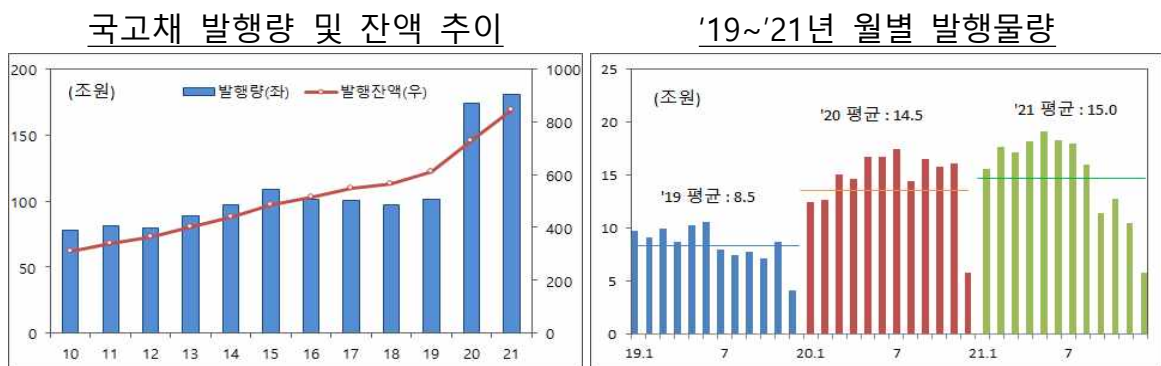


2021년 글로벌 금리(10년물)



## ◇ [발행] 국고채 총 180.5조원 발행('20년 174.5조원 대비 +6.0조원)

-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'19년 대비 +78.8조원, '20년 대비 +6.0조원 증가한 총 180.5조원 발행
  - 순증 규모는 전년 대비 +1.6조원 증가한 116.9조원, 상환규모는 전년 대비 +4.4조원 증가한 63.6조원 기록
  - 시장 여건을 고려한 연물별·시기별 발행물량 조정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의 발행량을 안정적으로 소화



## ◇ [외국인 투자] 연간 외국인 순투자 +63.9조원

- 외국인 채권 자금은 '21.1~12월 연속 유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+63.9조원('20년 26.5조원 대비 +37.4조원)의 순유입 기록\*
  - \*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(조원): ('12)91.0 ('15)101.4 ('19)123.7 ('20)150.1 **(21)214.0**
  -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털, 양호한 재정건정성,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이 순유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
- 외국인의 원화채 투자 저변이 강화되어 단기성향 투자자 및 중장기성향 투자자 모두 역대 최대 규모\*로 유입
  - \* 단기성향 투자자(투자은행·펀드 등) : '21년 +27조원('20년 5.5조원 대비 +21.5조원)
  - 중장기성향 투자자(국부펀드 등) : '21년 +36.9조원('20년 21조원 대비 +15.9조원)

### ◇ [수급여력 개선] 2년물 신규발행 등을 통해 수급여력 확충

- (2년물 도입) 시장의 수급부담 완화, 단기 지표금리 설정 등을 위해 '21.2월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
    - '21년 발행량(12.5조원)에 대한 높은 응찰률(309.1%)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고, 시장의 중장기물 수급 부담 완화 등에 기여
  - (인센티브) 전문딜러(PD)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인수기반 강화
    - 모집 방식 도입 등 PD 비경쟁인수\* 권한 확대<국고채 비경쟁인수 실적 : 27.8조원>, PD가 국고채 인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규정 개정
- \* 입찰 후 3영업일 동안 국고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최고 낙찰 금리로 추가 인수 가능

### ◇ [국채시장 안정화]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금리 변동 최소화

- (바이백)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총 3차례, 4조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\*을 적기에 실시하여 금리 변동성 완화
  - \*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대응하여 8.25일, 8.31일 각 1조원씩 바이백 실시 / 10월 대내외 통화긴축 우려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자 11.5일 2조원의 바이백 실시
- (공급 조절) 초과세수(2.5조원) 및 시장조성용 발행량 축소(3.3조원)를 활용, 11~12월 공급량을 계획 대비 축소(△5.8조원)하여 금리 안정화
- (정책 공조) 한은과 긴밀히 정책 공조, 상반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한은에서는 6조원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

### ◇ [인프라 개선]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

- (국채연구자문단\*) 국채시장을 상시점검하고, 핵심목표<sup>①</sup>효과적 발행, <sup>②</sup>수요기반 강화, <sup>③</sup>안정적 시장관리) 달성을 위한 중점 연구 추진
  - \* 국채시장 안정화선진화를 위해 KDI·금융연·자본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출범('21.2)
- (국채관리시스템) <sup>①</sup>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DB 구축 <sup>②</sup>국채 발행모형 탑재, <sup>③</sup>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